

『月峯海上錄』의 서술 특성과 작자 의식

김미선(전남대 국문과 박사수료,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 연구원)

<차 례>

1. 머리말
2. 노정과 서술적 특성
 - 2.1 귀환의지의 걱정적 토로
 - 2.2 국내의 노정 기술
3. 『월봉해상록』에 반영된 작자 의식
4. 맺음말

<국문초록>

임진왜란기 포로 해외체험 실기는 공통된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작자만의 노정과 작자의 의식이 작용하여 작품만의 개성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노정을 바탕으로 한 서술적 특성과 작자 의식을 살펴서, 鄭希得(1575~1640) 『月峯海上錄』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먼저 『월봉해상록』의 서술적 특성은 귀환의지의 걱정적 토로, 국내의 노정 기술 두 가지로 파악하였다. 정희득은 피랍 때 어머니와 만삭의 아내가 자결하였고, 아버지와 어린 두 자식은 조선에 남겨졌다. 관료의 위치에 있지 않은 자연인이자, 누구보다 가족을 중시하였던 정희득은 해외체험 노정 동안 실현되지 못하는 귀환에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며, 귀환의지를 걱정적으로 토로하였다. 정희득은 姜沆, 魯認에 비해 가장 짧은 기간 동안 해외체험을 하였지만, 걱정적 귀환의지 토로는 『월봉해상록』에서만 볼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갔다가 힘겹게 부산에 도착한 이들에게 국가는 대책을 세워주지 못했고,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고향을 찾아가야 했다. 정희득은 강항, 노인과 달리 조선에 도착한 후의 노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술하여 임진왜란기 포로 해외체험 실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고향에 도착하고 자식을 만나는 것까지 기록하여 노정의 진정한 마무리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월봉해상록』에는 비극적인 개인으로서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희득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끊임없이 표현하였는데, 이는 가족과 헤어진 아픔을 겪는 비극적인 개인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 정희득은 함께 비극을 겪는 동료들 뿐만 아니라 신분이 낮은 노비들에게조차 애정을 보이고 서글픈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었다. 주인, 양반으로서의 권위보다 같은 아픔을 겪는 한 개인으로서의 의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자 의식은 『월봉해상록』이 임진왜란기 포로들의 처절한 슬픔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이 되게 하였다.

핵심어 : 정희득, 『월봉해상록』, 임진왜란 포로, 노정, 서술 특성, 귀환의지, 작자 의식

1. 머리말

鄭希得(1575~1640)의 자는 子吉, 호는 月峯이며, 본관은 진주이다. 함평 사람으로, 1597년 일본의 재침략 때 가족과 친척이 함께 뱃길로 피란을 떠났다가 1597년 9월 27일에 왜적에게 잡혔다. 잡힐 때, 어머니와 형수, 아내와 누이동생이 바다에 빠져 자결하였는데 정희득 형제 등은 묶여있는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함께 잡혔던 아버지와 두 아이는 왜적이 놓아 보내주고, 정희득은 형 鄭慶得, 집안 사람인 鄭好仁 형제 등과 함께 일본 阿波州 德島城으로 압송되었다. 이후 1598년 11월 22일에 덕도성을 출발하여 귀국길에 올라 12월 22일에 대마도에 도착한다. 그러나 대마도주의 허락을 받지 못해 6개월 가량을 억류당한 끝에 1599년 6월 17일에 대마도를 출발하여 6월 29일에 부산에 도착하고, 고향인 함평에는 7월 20일에 도착한다.¹⁾

『월봉해상록』²⁾은 정희득의 일본 체험 전체를 기록한 실기로 원래는 『萬死錄』이라 이름하였던 것을 후손 鄭德休가 『海上錄』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월봉해상록』 권2의 시 <이 日記 한 편을 萬死錄이라 이름하고 一絶을 짓다(名此日記一篇曰萬死錄仍記一絶)>와 鄭德休의 발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월봉해상록』은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1에는 疏, 風土記, 日錄이 실려 있고, 권2에는 詩 460여 수가 실려 있다. 이 중 중요한 문학 작품은 일록과 시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대상으로 『월봉해상록』의 서술적 특성과 작자 의식을 살피고자 한다.

임진왜란 때 포로로 해외를 체험한 사람은 9~14만에 이르며,³⁾ 이 중 조선으로 돌아온 사람은 6,300여 명으로 확인된다.⁴⁾ 그리고 포로로 해외를 다녀온 체험을 실기로 남겨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姜沆의 『看羊錄』, 魯認의 『錦溪日記』, 鄭慶得의 『萬死錄』, 鄭希得的 『月峯海上錄』, 鄭好仁의 『丁酉避亂記』 총 다섯 편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경득과 정호인은 정희득과 같은 집안 사람으로 해외체험 과정을 함께 하였고, 그들의 실기는 정희득의 실기를 참조하여 작성한 흔적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기 포로 해외체험 실기 중 개성적인 작품은 『간양록』, 『금계일기』, 『월봉해상록』 세 편이다. 이 중 『월봉해상록』은 『만사록』과 『정유피란기』를 파생시켰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의가 있다.

그 동안 『월봉해상록』은 다른 임진왜란기 실기 작품들과 함께 연구가 되었고⁵⁾, 단일 작품에 대해서는 고사와 관련한 연구⁶⁾, 정희득의 일본 인식을 파악한 연구⁷⁾, 『월봉해상

- 1) 김미선, 「임진왜란 포로의 일본 체험 실기 고찰」, 『고시가연구』 25,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43쪽.
- 2) 본 논문에서는 1846년에 간행된 『월봉해상록』(전남대 중앙도서관 소장)을 기본 자료로 하였고, 국역은 이상형·김달진이 번역한 《국역해행총재》Ⅷ(민족문화추진회, 1977)를 참조하였다.
- 3) 민덕기, 「임진왜란 중의 납치된 조선인 문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395쪽.
- 4) 요네타니 히토시, 「사로잡힌 조선인들-전후 조선인 포로 송환에 대하여-」,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89쪽. 요네타니 히토시는 6,323명으로 파악하였다.
- 5) 소재영, 「壬亂被虜들의 海外體驗-錦溪日記·看羊錄·海上日錄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9·10, 겨레어문학회, 1985 ; 김태준, 「임진왜란과 국외체험의 實記文學」,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 이채연, 『壬辰倭亂 捕虜實記 研究』, 박이정, 1995 ; 장경남, 「壬辰倭亂 實記文學 研究」,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김기빈, 「壬亂時 被俘 文人의 體驗的 文學의 考察-‘看羊錄’과 ‘月峯海上錄’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21, 한국한문학회, 1998 ; 김선희, 「포로 억류기를 통해 본 조선지식인의 ‘일본’을 향한 시선」, 『사람』 34, 수선사학회, 2009 ; 김미선, 「임진왜란 포로의 일본 체험 실기 고찰」, 『고시가연구』 25,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 윤인현, 「海上錄과 丁酉避亂記 研究-일본풍물 및 일본인 인식과 선비精神 중심으로-」, 『한문학논총』 32, 근역한문학회, 2011 등.
- 6) 정훈식, 「月峯海上錄과 蘇武傳」, 『문창어문논집』 38, 문창어문학회, 2001.
- 7) 방기철, 「月峯海上錄을 통해 본 鄭希得的 일본 인식」, 『한국사상과문화』 47,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록』 소재 한시에 대한 연구⁸⁾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월봉해상록』의 다양한 면모가 파악되었지만 『월봉해상록』의 중요한 창작 기반인 노정을 바탕으로 작품을 살핀 논문은 없다. 임진왜란기 포로 해외체험 실기는 모두 20~30대의 젊은 호남 문인들이 정유재란 때 포로로 일본에 잡혀갔다가 일본에서 억류생활을 하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노정을 담고 있어서, ‘피란-피랍 및 일본 이송-일본 억류-귀환’이라는 공통된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구조는 같지만, 작자들은 해외체험 과정 중 다른 노정을 겪게 되고, 그 노정은 작품의 서술 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⁹⁾ 곧 해외체험 노정을 기술한 작품군의 특성상 작품의 서술 특성은 노정과 함께 살폈을 때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작자가 어떤 작자 의식을 가지고 실기를 작성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자만의 노정, 작자의 의식이 작용하여 『월봉해상록』만의 개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정희득이 일본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치중하였고, 정희득의 작자 의식을 살피는 데에는 소홀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서술적 특성과 작자 의식을 살피서, 『월봉해상록』이 갖는 특징을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2. 노정과 서술적 특성

정희득은 임진왜란기 포로 해외체험 실기 작자 세 사람 중 억류된 시기가 가장 짧다. 강항은 1597년 9월 23일에 일본군에게 잡혀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1600년 4월에 귀국길에 오르고, 노인은 1597년 8월에 포로가 되었다가 1599년 3월 중국으로의 탈출에 성공하고 1600년 1월에 한양에 도착한다. 정희득은 1597년 9월 27일에 왜적에게 잡혀 일본으로 이송되어 1597년 12월 30일에 일본 南海島 阿波州에 도착하였고, 아파주의 徳島城에 억류되었다가 귀국을 승인받아 1598년 11월 22일에 출발하였으니, 약 1년 가량의 시간 동안 일본에 억류된 것이다. 이렇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억류지에서 풀려났으나, 귀환하는 과정에서 정희득 일행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

‘피란-피랍 및 일본 이송-일본 억류-귀환’의 과정 중 ‘귀환’ 부분이 강항의 『간양록』에 짧게 서술된 데 반해, 귀환 중 많은 고난을 겪었던 정희득의 『월봉해상록』에는 귀환의 전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덕도성에서 대마도까지의 이동-대마도 억류-대마도에서 부산까지의 항해-부산에서 함평까지의 육로 이동’의 과정이 「해상일록」에 실려 있어 귀환의 전 과정을 볼 수가 있다. 이 귀환 과정의 중요 사건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일자	사건
1598년 11월 3일	가정에게 글로 귀국을 요청함
1598년 11월 22일	배로 덕도성을 출발함
1598년 12월 22일	대마도 상륙(대마도 도착은 12월 21일)
1599년 6월 17일	대마도 출발

8) 장미경, 「壬亂 被虜者의 捕虜體驗 漢詩研究-鄭希得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0,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9) 김미선, 「‘看羊錄’의 여정에 따른 서술 방법」, 『도서문화』 38,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2011, 148~149쪽.

1599년 6월 29일	부산 도착
1599년 7월 20일	함평 집에 도착
1599년 7월 28일	장모 댁에서 아이를 데려옴(일기의 마지막 기록)

「해상일록」은 1597년 8월 12일부터 1599년 7월 28일까지 2년 가까운 기간의 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중 윤3월을 포함하여 9개월 가량의 일기가 귀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이를 통해서 정희득의 노정에서 귀환 과정이 갖는 비중과 특수성을 알 수 있다.

특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대마도에 도착하였지만, 대마도주가 자리를 비우고 있어 6개월 가량의 시간을 대마도에 억류당하게 되는데, 고국을 가까이 두고도 가지 못하는 고통은 매우 큰 것이었다.¹⁰⁾ 또한 겨우 승인을 얻어 중국 사신과 함께 대마도를 출발하지만 대마도에서 부산으로 가는 노정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산에서 고향인 함평으로 가는 길 또한 결코 쉽지 않았다. 정희득의 실기에는 이 고향으로 가기까지의 과정도 서술되어 있어 당대에 어렵게 조선으로 돌아온 해외체험 포로들이 고국에서 또다시 겪었던 고통까지도 볼 수가 있다.

2.1 귀환의지의 걱정적 토로

전쟁 중에 적국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가족들의 죽음을 보게 된다면 더욱 그러하다. 왜적에게 잡힐 때 정희득의 어머니와 아내 등은 주저하지 않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 아내는 정희득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꼭 생환하라고 당부하고 자결하는데, 이때 만삭의 몸이었다. 정희득은 묶여 있는 상태라 눈 앞에서 어머니와 아내 등이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니 그 고통은 간장이 찢어지는 듯 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꼭 생환하라는 아내의 마지막 당부는 정희득에게 무슨일이 있어도 이루어야 할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와 다섯 살, 세 살의 어린 두 아이는 왜적들이 바닷가에 놓아 보내 헤어지게 된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봉양하고,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을 보살펴야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덕목이었다. 전쟁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어머니와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만, 정희득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봉양하고 어린 자식들을 돌봐야 했다. 고국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은, 일본에서 고달픈 억류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귀환 과정에서 배가 뒤집힐 뻔 하고, 대마도에서 재억류되는 등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도 정희득이 죽지 않고 사는 원동력이 된다.

강항도 정희득처럼 해외체험 도중 가족과 이별하였다. 피란 중 아버지의 배와 떨어져 이별하였고, 어린 자식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강항은 효를 실행하지 못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보다, 신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조정의 관료로서 해외체험 노정 동안 나라를 위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해 노력한다. 홀로 잡혀가 중국으로 탈출했던 노인도 催歸文에서만 부모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일기에서는 중국에 대한 학자적 관심을 보이며 본인의 감정 서술은 자제한다. 그러나 관료의 위치에 있지 않은 자연인이자, 누구보다 가족을

10) 강항의 경우 귀국 당시 대마도에 머문 것 같지만 얼마나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4월 2일 京都를 출발하여 壹岐에서 열흘 간 머문 후 5월 19일 부산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 그리 오랜 기간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다.(방기철, 「睡隱 姜沆의 일본인식」, 『한국사상과문화』 57,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190쪽)

중시하였던 정희득은 해외체험 노정 동안 간절히 귀환을 희망하며, 실현되지 못하는 귀환에 극도의 슬픔을 느낀다. 강항, 노인, 정희득은 모두 정유재란 때 남원성이 함락된 후 일본으로 잡혀가 해외체험 시작 시기는 비슷하다.

노정\인물	강항	노인	정희득
피랍일	1597년 9월 23일	1597년 8월	1597년 9월 27일
일본 본토 출발	1600년 4월 2일	1599년 3월 17일	1598년 11월 22일
조선 도착	1600년 5월 19일 (부산)	1600년 1월 (한양)	1599년 6월 29일 (부산)
특징	일본 억류 중 두 번의 이송	중국으로 탈출하여 중국 경유 후 귀환	귀환 중 대마도 재억류

위의 표는 세 사람 노정의 주요 일자를 표기한 것으로, 귀환 시기와 과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강항은 1600년 4월에 귀환길에 오르고, 노인은 1599년 3월에 일본으로 탈출하고, 정희득은 1598년 11월에 귀환길에 오른다. 정희득의 경우 다시 대마도에 억류되어 1599년 6월에 부산으로 돌아오지만, 세 사람 중 가장 짧은 일본 본토 억류를 경험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시기도 가장 빠르다. 하지만 정희득은 그 누구보다 간절하고, 또 일관되게 귀환의지를 표출한다.

① 網羅難絆枕邊魂 고향 그리는 닢 그물로도 얽어매기 어려워
 渡海穿雲繞故園 바다 건너 구름 넘어 고향 간 꿈
 如何添得今宵漏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밤 좀더 길게 하여
 訴盡胸中無限冤 가슴 속 무한한 한 모두 호소해 볼고

三夜飛雲繞夢深 한밤 꿈에 구름만 짙으니
 覺來冤淚自沾衿 원망스런 눈물이 절로 옷깃 적시네
 孤魂一片應奔月 한 조각 외로운 혼아 달로 달려라
 須照天涯未死心 하늘 끝에 죽지 못하는 마음을 비춰 주고파¹¹⁾

② 홀로 산꼭대기에 올라 서쪽을 바라보고 통곡했다. 널찍한 바다는 하늘에 닿았는데 이 몸은 좁쌀인 듯하구나.¹²⁾

밤이라는 시간은 고요함과 어두움을 동반하여 사람을 감상적으로 만든다. 낮의 활기가 사라진 밤에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데, 비극에 처한 사람은 이때 더한 슬픔을 느끼게 된다. 정희득 또한 밤 시간에 더욱 고통스러워하며 꿈을 통해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한다. ①의 시는 꿈에 관한 것으로, 제1수에서는 고향 가는 꿈을 꾸고 어떻게 하면 이 밤을 더 길게 할 수 있을까 하소연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 억류된 상태이기에 꿈 속에서나 오래도록 고향에 있고 싶은 것이다. 제2수에서는 반대로 꿈에 고향을 가지 못하고 구름만 짙어 원망스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희득은 고향 가는 꿈을 꾸었을 때도 현실로는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슬퍼하고, 고향 가는 꿈을 꾸지 못했을

11) 鄭希得, 『月峯海上錄』, 「卷二」, <夢覺記憶【二首】>

12) 獨上絕頂, 西望痛哭. 滄海連天, 此身如粟. - 鄭希得,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7년 12월 19일.

때는 꿈에서조차 귀환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 더욱 서러워한다. 귀환할 수 없음에 이토록 서글퍼한다는 것은, 둘러서 생각하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귀환에 대한 의지를 간절히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과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 바다는 배와 날씨의 도움이 있어야만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귀환의 큰 장애물이다. 무엇보다 조선으로의 귀환은 바다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②는 1597년 12월 19일 일기의 전문이다. 일본에서 억류생활을 하면서도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정희득은 혼자서나 형님과 함께 또는 동료들과 함께 산에 오른다. 산이라는 높은 곳에 오르면 더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국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널찍한 바다는 하늘과 맞닿아 있어 그 광활한 넓이만 알려줄 뿐, 그 너머는 볼 수가 없다. 정희득은 바다 너머 고국이 그리워 서쪽 바다를 보지만, 바다는 넓고 자기 자신은 좁쌀만큼 작아 바다를 건너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 번 느끼고 슬퍼한다. 정희득은 억류기간 동안 여러 차례 산에 올라 조선이 있는 서쪽의 바다를 바라보며 위와 같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슬픔을 토로한다.

정희득은 일본에서 일상 생활을 하며 보게 되는 거의 모든 것들에서 슬픔을 느낀다. 꽃을 보아도 새를 보아도 그는 고국을 떠올리고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한다. 귀환하지 못하는 이상, 그는 결코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 ① 雙飛棲鳥集深枝 쌍쌍이 날다 쉬는 새 무성한 가지에 모이어
 雄逐其子母哺雛 수놈은 그 아들 따르고 어미는 새끼에 모이 먹인다
 可以人而不如鳥 사람으로서 저 새보다 못해서 되겠는가
 煢煢孤影向何之 근심스러운 외로운 그림자 어디로 갈고¹³⁾

- ② 家政이 부채를 보내 왔다. 문득 생각하니 고향에도 쇠를 녹이는 더위가 있을 텐데, 늙으신 아버지의 잠자리는 누가 있어 시중들까? 자식이 있어 불효할 바엔 죽는 것만 못함이 이미 오래다 싶어 울고 또 울었다.¹⁴⁾

날개를 펼치고 비상하는 새는 자유의 상징이기도 하다. 억류되어 있는 정희득에게 자유로운 새의 날개짓은 부러움의 대상일 것이다. ①의 시에서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가족과 함께 있는 새가 등장한다. 정희득은 암수가 쌍쌍이 날며 새끼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처지가 새만도 못함을 하소연한다. 이미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쌍쌍이 함께 하는 것을 이룰 수 없지만, 고향으로 돌아가 자식을 돌보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반대로 시장에서 조롱 안에 든 새를 본 1598년 2월 15일자 일기나, <歎籠雉>, <見籠中孤鳥有感【三首】> 등의 시에서는 조롱 속에 홀로 갇혀 있는 새를 보고서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하며 슬퍼하기도 한다.

1598년 6월 27일 일기의 전문인 ②에서는 더운 여름날에 부채를 받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정희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쇠를 녹이는 무더운 날씨에 늙으신 아버지 곁에는 봉양할 자식이 없다. 형수와 아내 등은 죽고, 정희득과 정경득은 살았지만 멀리 일본에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으면서도 효도를 실천할 수 없는 현실에 정희득은 죄책감을 느끼며, 다시 한 번 귀환할 수 없는 현실의 슬픔을 토로하여 귀환의지를 드러낸다.

이외에도 시간의 흐름을 깨닫게 될 때, 정희득은 더욱 귀환하지 못하는 현실을 슬퍼한다.

13) 鄭希得, 『月峯海上錄』, 「卷二」, <見雙鳥有感>

14) 家政送扇. 却憶故園流金之日, 老親扇枕, 有誰主之. 有子不孝, 不如死久矣, 痛泣痛泣. - 鄭希得,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8년 6월 27일.

일본에서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뀐다는 것은 억류생활이 길어지고 아버지를 보지 못한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노비가 썩을 뜯어오자 봄이 왔음에 놀라고 슬퍼하며, 참외를 먹다가 시절이 바뀌고 햇과일이 익었음에 놀라 친구들과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이렇듯 일본의 阿波州 德島城에 억류되어 있던 1년여의 시간 동안 귀환만을 생각했던 정희득 일행은 귀환을 허락받고, 1598년 11월 22일에 덕도성을 출발하여, 1599년 12월 22일에 대마도에 도착한다. 도착했을 당시 대마도주 義智와 家老人 平調信은 왜경에 가 있고, 참모인 玄蘇가 대마도에 있었다. 대마도주가 돌아오기 전에는 귀환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하여, 정희득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대마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대마도에서의 생활은 덕도성보다 훨씬 힘들었다. 정희득 일행은 절에 간혀 출입도 못하며 지내기도 하였고, 직접 썩을 뜯는 등 일본 본토에서 하지 않았던 노동을 하기도 하였다.

6개월 가량 대마도에 억류되면서 정희득은 덕도성 억류와 마찬가지로 귀환하지 못하는 고통을 감추지 않고 표현하여 귀환의지를 토로한다. 억류생활을 하다가 겨우 풀려나 고국으로 향했으나, 다시 대마도에 억류된 심정은 어느 때보다 슬펐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재억류 기간에는 일본인에게 쓴 글과 시를 통해 억류의 고통과 귀환의지를 표출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노인이 중국에서 승인을 얻어야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정희득도 대마도주의 승인을 얻어야만 배를 출항하여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노인이 催歸文으로 귀환의지를 표현한 것처럼, 정희득도 일본인에게 쓴 글과 시를 통해 대마도 억류의 고통을 표출하고 돌려보내 달라고 사정을 한다. 그런데 노인이 중국인과 교류하면서 안정되게 지내다가 최귀문에서 전쟁 중 타국을 떠도는 고통과 귀환의지를 표현한 반면, 정희득은 일본 억류 중의 일기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아픔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일본인에게 쓴 글과 시를 통해 억류의 고통을 표출한다. 이때 일본인에게 쓴 글과 시는 최귀문같이 공식적이고 완결된 글은 아니며, 단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일본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이는 대마도 억류라는 특수한 노정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월봉해상록』의 다른 노정에서는 거의 없는 ‘대마도 억류’ 노정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① 글을 써서 현소에게 보이기를, “우리들이 阿波에 있을 적에 老父를 생각하여 낮밤으로 울부짖고 하늘에 호소하였더니, 하늘도 감동하여 가만히 기회를 열어 주었소. 그리하여 한번 돌아가는 뜻을 달고 이 섬에 와서 흰 구름 돌아보니, 다만 한 줄기 바다만이 가로막혀 있건만, 내 걸음 더디고 더더 훌쩍 날지 못하였소. 그런데 어찌 장에서 벗어난 새가 도리어 장 속에 갇힌 새가 될 줄 알았겠소? 원컨대 그대는 특히 애절한 심정을 짐작하여 빨리 돌아가게 해 주면 어떨겠소? 저번에 ‘보름 있으면 곧 배를 띄우게 될 것’ 이라는 기별이 있었거늘, 보름이 이미 지났어도 아직 결말이 없음은 무슨 까닭이오?” 하였다.¹⁵⁾

② 雪涕徒沾臆 눈물 씻으려면 한갓 가슴만 적시는데
 家山不入眸 고향 산천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離腸隨劍刃 떠난 마음 칼로 에는 듯한데
 歸夢幻莊周 돌아가는 꿈 장주로 변하여라
 九十春光盡 구십일 봄빛이 다 가는데
 三千客路脩 삼천리 밖 나그네 길 멀기만 하다

15) 書示玄蘇曰, 我等之在阿州, 思念老父, 晝夜呼泣訴天, 天亦爲之感動, 默想事機以致. 一掛還帆, 已抵此島, 回瞻白雲, 只隔一帶之海, 我行遲遲, 不能奮飛. 豈意脫籠之禽, 反作入籠之鳥乎. 願左右特念至情, 俾得過還如何. 向有望後卽得解纜之示, 而望日已過, 尙無自白何也. - 鄭希得,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9年 1月 17日.

- 自嘆還自笑 스스로 한탄하다 웃나니
 誰怨又誰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¹⁶⁾
- ③ 步月腸愈裂 달빛에 거니니 창자 더욱 찢어지고
 看雲眼幾穿 구름 너머 고향 하늘 몇 번이나 바라보았던가
 雁兒應啄啄 여러 애들은 응당 먹을 것을 다투겠고
 鶴髮想鮮鮮 아버지 머리는 아마 희끗희끗해졌으리¹⁷⁾

①은 1599년 1월 17일 일기에 쓰인 글이다. 정희득은 1598년 12월 28일에 대마도주의 참모인 승려 현소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일행을 억류했던 아파수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절박한 심정을 생각해서 보내 준 것으로 늙은 아버지를 돌아가 뵈기가 한 시각이 한 해 같다고 하며 보내 달라고 글로써 사정을 하였다. 하지만 정희득의 부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월 17일에 다시 아파수가 아버지를 생각하여 자신들을 놓아준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국을 가까이 두고도 가지 못하는 억류의 고통을 토로한다. 특히 ‘어찌 장에서 벗어난 새가 도리어 장 속에 갇힌 새가 될 줄 알았겠소?’라고 하여 억류에서 풀려나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갇히게 된 고통을 비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간절한 사정에도 현소는 대마도주가 돌아오면 날짜를 지연하지 않고 보내줄 것이라고 대답하고 보내주지 않는다. 이후에도 대마도주는 돌아오지 않고 정희득 일행은 대마도에 머무를 수 밖에 없어, 정희득은 다시 여러 차례 글을 쓰게 된다. 그리고 글 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 보내는 시로도 본인의 감정을 드러낸다. 다음의 표는 『월봉해상록』의 권2에 있는 대마도에서 일본인에게 보낸 시를 정리한 것이다.

수신자	제목	형식	수신자	제목	형식
玄蘇	贈玄蘇	오언절구	玄規	對馬島贈主僧玄規	오언장편
	書懷示玄蘇二十八韻	오언장편		主僧玄規求詩贈之	칠언율시
	寄玄蘇	칠언절구		贈主僧玄規	칠언절구

②는 현소에게 쓴 시인 <회포를 적어 현소에게 보이다 28운(書懷示玄蘇二十八韻)>의 일부이다. 위의 인용된 부분에 앞서 고국이 가까운데 가지 못해 머리가 하얗게 세고 있다고 대마도 억류의 고통을 표현한 후 위에서와 같이 봄빛이 다 가는데 나그네 길 멀기만 하다고 한탄한다. 일본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는 고통스런 마음이 잘 표현되면서도, 일본을 원망하는 표현이 없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라고 하여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한탄할 뿐이다. 대마도에 있는 동안 정희득은 현소 뿐 아니라 머무르고 있던 절의 主僧인 玄規에게도 시를 써서 대마도 억류의 고통을 표현한다. ③은 <대마도에서 주승 현규에게 주다(對馬島贈主僧玄規)>의 일부로,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아이들과 아버지를 그리는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마도에서 현소와 현규에게 쓴 시는 정희득이 자발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요청에 의해 쓴 것이다. 1599년 2월 11일 일기를 보면 현규가 시로 심회를 써 달라고 하자 그 뜻이 현소 등에게 보여 빨리 송환케하려는 것을 알고 정희득은 바로 시를 짓는다. 1599

16) 鄭希得, 『月峯海上錄』, 「卷二」, <書懷示玄蘇二十八韻>

17) 鄭希得, 『月峯海上錄』, 「卷二」, <對馬島贈主僧玄規>

년 윤3월 28일 일기에는 현소가 시를 요구하자 놓아 보내려는 상의를 위해 청한 것이므로 마지못해 시를 짓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보면 정희득이 빨리 돌아가기 위해 시를 쓴 것으로, 일본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본인의 감정을 간절하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현소는 시를 읽고 ‘굽힐 수도 잡아둘 수도 없다’라고 탄식한다. 일기 부분에는 시가 나와 있지 않지만 위에서 인용한 시들이 이때 쓴 것으로 추측된다.

대마도에서 괴롭게 억류생활을 하며 대마도주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희득 일행은 중국 사신 河應朝·王洋 등과 함께 그들의 배로 1599년 6월 17일 드디어 대마도를 떠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정희득은 알지 못했지만, 이들의 대마도 억류와 귀환은 대마도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조선으로부터 쌀 등의 생필품 공급과 무역으로 살아온 대마도는 조선과의 관계단절이 계속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견딜 수 없었고, 1599년부터 사신을 보내어 포로를 송환하는 등의 성의를 보이면서 계속하여 화의를 구하였다.¹⁸⁾ 정희득 일행도 이러한 대마도의 이익을 위해 억류당했다가 조선으로 보내지게 된 것이다. 이는 『宣祖實錄』에 실린 일본의 書契¹⁹⁾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서계에서 정희득 등을 배편으로 보낸다고 알리면서 이후로 두 나라가 우호관계를 맺으면 일본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배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조선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데는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정희득 일행은 그 초기 사례로 조선으로 오게 된 것이다.

2.2 국내의 노정 기술

6개월 가량을 대마도에 억류되었던 정희득은 드디어 대마도를 출발하여 조선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런데 대마도에서 부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위기를 겪게 된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했다고 해서 모든 노정이 끝난 것이 아니다. 고향인 함평으로 가는 노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월봉해상록』에는 이렇게 일본에서 풀려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고향인 함평에 이르기까지 조선에서의 노정도 일기로 기술되어 있어 임진왜란기에 포로로 해외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조선에서 겪었던 고통까지도 보여 준다.

먼저 정희득 일행은 대마도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중 뜻 밖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1599년 6월 17일에 출항을 하였는데, 출항한 지 3일 만인 6월 20일 일본인의 저지를 받게 된 것이다. 일본인 賀兵衛가 나타나 갑작스레 배를 저지하고 중국 사신들을 태워 데리고 가며, 6월 23일에는 배의 문첩을 모두 수색하고 정희득 일행 또한 데리고 간다. 이 때의 사건은 일본에 있던 중국 사신 劉萬壽와 茅國科가 공을 다투어 생긴 일로, 6월 24일에 모두 배로

18) 최관, 『일본과 임진왜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125쪽.

19) 또 지난해 왜장이 전라도를 함락할 때 豊臣茂成이 귀국 사람을 잡아 왔었는데, 지난 겨울에 무성을 떠나 陋島에 도착한 무리 柳澳【처 郭氏 및 처제】·鄭喜(希의 오기)得鄭慶得【자녀】·鄭橙·朱顯男·鄭好仁·柳汝宏·柳汝寧·林得梯【처】·柳興男·鄭好禮【여자 4인】를 지금 배편으로 보냅니다. 금후로 두 나라가 우호관계를 맺으면 떠나간 자나 도망간 자, 또는 이곳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배로 내보낼 것인데, 이 사실 또한 예조 대신에게 전달하면 좋겠습니다.(又前年倭將陷全羅道之日, 豊臣茂成捉貴國人來, 去冬辭茂成, 到陋嶋之徒柳澳【妻郭氏及妻弟】·鄭喜得, 鄭慶得【女子】·鄭橙, 朱顯男, 鄭好仁, 柳汝宏, 柳汝寧, 林得梯【妻】·柳興男, 鄭好禮【女四人】·今附于船尾以送之. 自今以往, 兩國屬和, 則或辭去者, 或逃去者, 又在此地者, 必差船送之, 是亦達禮曹大人則好矣.) - 『宣祖實錄』, 宣祖 32年(1599) 7월 14日.

돌아오고, 25일에 다시 출발하여 어려움은 곧 끝나지만 겨우 대마도에서 출발하게 된 정희득 일행에게는 매우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이후 정희득 일행은 6월 26일과 28일 바람에 막혀 머무른 후 1599년 6월 29일에 부산에 도착한다.

바람이 순하여 닻이 울자 배를 띄웠다. 어스름 저녁에 부산 앞 바다에 닿으니, 첨사 李宗誠이 작은 배를 타고 나와 맞이하는데 金帶玉頂 차림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선하였다. 우리들은 귀신 지옥 캄캄한 밤중에 있는 지 3년이 되어 오늘에야 조관의 풍채를 보니 슬픔과 기쁨을 형언할 수 없었다. 종성이 우리 배를 끌어 부산진 앞 포구에 대었다. 하·왕 등 5인과 왜노꾼[倭槽] 9명은 중국 배에 옮겨 뒀다. 그때 중국 군사는 부산 포구에 진을 치고 있었으며, 선상의 장수는 곧 俞千摠이라 했다. 우리들은 배에서 내려 이종성의 鎭中에 있었는데, 接伴官 劉夢龍이 와서 보고 이내 데리고 가 그의 처소에서 잤다. 등불 밑에서 장계의 초본을 작성했다.²⁰⁾

위의 글은 부산에 도착한 날인 1599년 6월 29일 일기의 전문이다. 강항이 부산에 도착했다고만 서술한 데 반해, 정희득은 첨사 이종성이 금대 옥정 차림으로 작은 배를 타고 맞이하는 상황과 조관의 풍채를 보니 슬픔과 기쁨을 형언할 수 없다고 자신의 심리까지 표현하고 있다. 또한 接伴官 劉夢龍이 일행을 데리고 가 그의 처소에서 자고 장계의 초본을 작성하는 등 부산에 도착해서의 상황을 볼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인에게 잡혀 타국인 일본까지 이송되어 오랜 억류생활을 하다가 조선으로 돌아온 사람은 6,300여 명에 불과하다. 9~14만여 명이 잡혀 갔다고 추정할 때 이렇게 돌아온 극히 일부의 사람은 행운아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렵게 조선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좋지 못했다. 요네타니 히토시는 조선 사료에, 피로인의 본국 귀환을 기록한 기사는 많지만 귀국 후의 대우 조치가 분명한 기사는 네 건(1600년, 1602년, 1603년, 1604년)에 불과하며 대마도에서 파견한 사선으로 송환된 피로인들에게는 이러한 특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²¹⁾ 이후 사절들이 데리고 귀환한 경우는 더 심하여 1625년 3월 146명의 피로인을 쇄환해 온 사절이 부산에서 서울을 향해 출발할 때 사절의 말 앞을 가로막고 엎어지며 피로인들이 울부짖는데, 고국에 막상 오긴 했으나 의지할 곳도 없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도 찾지 못하겠다는 울부짖음이었다.²²⁾ 정희득은 전쟁이 끝난 직후인 1599년에 부산으로 돌아왔는데, 이 때 돌아온 사람들에게 양식, 말 등 어떠한 것도 제공되지 않아 자신의 힘으로 고향으로 이동해야 했음을 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99년 7월 3일 정희득의 형 정경득이 먼저 김해로 출발하고, 7월 4일에 정희득도 부산에서 출발한다.

① 중검과 호인을 남겨 두고, 나 혼자 떠나 김해로 향했다. 종일 혼자 걸으며 두 번이나 나룻배를 건너 아득히 풀밭을 지나니, 路上의 고초는 말할 수가 없다. 밤 二更에 김해에 당도하여 잤다.²³⁾

20) 風順, 鷄鳴發船. 薄暮到泊釜山前洋, 僉使李宗誠乘小舸來迎, 見宗誠腰金頂玉, 延接周旋之儀. 我等處在鬼域長夜之中者, 三載于茲, 而今日得觀漢官威儀, 悲喜難狀. 宗誠引我船到釜山鎭前浦口. 河汪等五人及槽倭九名, 則移載于唐船. 時天兵列陣于釜山浦口, 唐船將乃俞千摠云. 我等則下船在李宗誠鎭中, 接伴官劉夢龍來見, 仍帶去而止宿其所焉. 燈下成啓草. - 鄭希得,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9年 6月 29日.

21) 요네타니 히토시, 「사로잡힌 조선인들-전후 조선인 포로 송환에 대하여-」,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105~107쪽.

22) 민덕기, 「임진왜란에 납치된 조선인의 귀환과 잔류로의 길」, 『한일관계사연구』 20, 한일관계사학회, 2004, 139쪽.

23) 留仲謙好仁而我獨發向金海. 終日踽踽, 再渡津船, 遠涉平蕪, 路上艱苦, 不可勝記. 夜二更, 得到金海留宿. - 鄭

- ② 자루에 쌀이 떨어져 길을 떠나지 못하고, 마을에 다니며 구걸하니, 舊穀은 이미 다 되었고 新穀은 아직 익지 않아, 종일 얻은 것이 매우 적었다.²⁴⁾
- ③ 새벽에 떠났다. 길이 막혀 풀이며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 종일을 가도 인적을 볼 수 없고 길옆에는 白骨이 쌓여 있었다. 물어보니 우리 군사와 적병이 싸웠던 곳이라 했다. 昌原 마을에서 잤는데 마을 이름은 南山이라 했다.²⁵⁾
- ④ 大捷碑를 지나서, 雲峯 땅 조그만 산중의 마을에서 잤다. 비가 와서 하늘은 매우 어둡고 호랑이가 낮에도 울고 다녀, 고생이 말할 수 없었다.²⁶⁾
- ⑤ 큰비가 내리고, 또 형님이 발을 다쳐 부득이 하루를 묵었다.²⁷⁾

7월 3일 부산을 출발하여 함평 도착 전날인 7월 19일까지의 일기는 다른 노정의 일기에 비해 비교적 짧다. 하지만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며, 짧은 글 속에도 이동 중의 어려움을 잘 파악할 수 있다. 「해상일록」은 기간으로 보면 만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의 기록이지만 매일 매일의 일기가 기록된 것은 아니다. 월별로 기록된 일자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연	1597년					1598년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일자	2일	8일	8일	4일	13일	11일	22일	23일	5일	7일
연	1598년					1599년				
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일자	17일	5일	12일	4일	6일	19일	24일	14일	12일	6일
연	1599년									
월	윤3월	4월	5월	6월	7월					
일자	9일	4일	6일	20일	22일					

그런데 조선에서의 노정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것은 1597년 11월에 4일간, 1598년 4월과 1598년 7월에 5일간, 1598년 9월에 4일간 등의 일기만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하루하루가 모두 중요하고 고통스런 노정이었음을 대변해 준다.

①은 1599년 7월 4일 일기의 전문으로 혼자 걸으며 두 번 나룻배를 건너는 등 길 위에서 고초를 볼 수 있으며, ②는 7월 5일 일기의 전문으로 쌀이 떨어져 구걸까지 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③은 7월 7일 일기의 전문으로 길이 막혀 풀과 나무가 하늘까지 닿고, 인적이 없고, 길 옆에 백골이 쌓여 있는 등 전쟁 후 폐허화된 조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는 7월 14일 일기의 전문으로 비가 와서 하늘이 어둡고, 호랑이가 낮에도 우는 등 정희득의 고생스런 노정을 볼 수 있으며, ⑤는 7월 15일 일기의 전문으로 고생스런 노정 속에 형이 발을 다치는 상황까지 나와 있다. 7월 11일에는 尹景珞이라는 사람이 대접을 해주고, 7월 16일에는 남원 부사가 쌀을 주는 등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희득은 힘든

希得,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9년 7월 4일.

24) 糧囊傾盡, 不能登途, 乞於村落, 而舊穀已盡, 新穀未登, 終日所得甚些. - 鄭希得,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9년 7월 5일.

25) 曉發行. 道路荒蕪, 草樹連天. 終日行行, 不見人跡, 只有路傍白骨委積. 問之則我兵與賊交兵之處云. 宿于昌原村, 村名南山云. - 鄭希得,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9년 7월 7일.

26) 過大捷碑, 宿雲峯境, 山中小村, 而雨天漆黑, 虎豹晝號, 酸苦不可言. - 鄭希得,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9년 7월 14일.

27) 大雨, 且舍兄足傷, 不得已留住. - 鄭希得,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9년 7월 15일.

노정을 거쳐 고향인 함평으로 향하게 되고, 부산에서 출발한 지 18일째인 7월 20일에 함평의 집에 도착한다.

① 집에 도착했다. 부친은 성내에 가셨다가 밤에 돌아오셨다. 손을 잡고 통곡했다. 모친은 하나의 나무 신주일 뿐이었다. 모친과 형수·아내·누이동생의 海中의 변고를 되짚어 생각하니 땅 극하기 이를 데 없다. 하늘을 부르짖고 땅을 치니 오장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듯했다. 게다가 奇兒는 이미 나이 8세라, 옷을 부여잡고 호곡하니, 이날의 심회 형언할 수 없다. 遇兒는 草洞 처가에서 기르기 때문에 당장 서로 보지 못하니 더욱 애련했다. 집은 불탔고 골목은 바뀌어졌으며, 촌락은 빈 터를 이뤄, 사람들이 옛 모습이 아니었다. 슬펐지만 오직 돌아와 노부를 모시게 된 것이 이 세상의 다행이었다.²⁸⁾

② 草洞에 가서 장모를 뵈고, 遇兒를 데리고 왔다. 나이 벌써 6세이다. 사람은 죽어도 흔적은 남았다. 지난 일 아득하여 애절한 심회 어찌 말로써 다 하리오.²⁹⁾

①은 고향 함평의 집에 도착하는 1599년 7월 20일 일기의 전문이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통곡하고 죽은 어머니와 아내 등을 생각하며 하늘을 부르짖는 모습에서 고생 끝에 아버지를 만난 기쁨보다 가족을 잃은 한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큰 아이를 보고 울고, 둘째 아이가 처가에 있어서 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는 등 가족에 대한 마음으로 이 날 일기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집은 불탔고 골목은 바뀌어졌으며, 촌락은 빈 터를 이뤄, 사람들이 옛 모습이 아니라고 하여 전쟁 후 피폐해진 고향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정희득은 고향에 도착한 것으로 일기를 끝맺지 않고 처가에서 둘째 아이를 데리고 온 7월 28일 일기로 「해상일록」의 기록을 끝맺는다. ②가 「해상일록」에 기록된 마지막 날인 1599년 7월 28일 일기의 전문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간 사람 중 조선으로 돌아온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니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 행복할 것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하지만 힘들게 부산에 도착한 이들에게 국가는 대책을 세워주지 못했고,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힘겹게 고향을 찾아가야 했다. 정희득은 부산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힘든 노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여 조선에서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강항, 노인의 실기에는 없는 조선에 도착한 후의 노정까지 기술하여 임진왜란기 해외체험 실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의 폭을 넓혔는데, 고향에 도착하고 자식을 만나는 것까지 기록하여 해외체험 노정의 진정한 마무리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3. 『월봉해상록』에 반영된 작자 의식

임진왜란 때 포로로서 일본에 억류생활을 하던 강항, 노인, 정희득 등은 모두 고국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강항은 세 차례나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노인은 중국으로 탈출에 성공하였으며, 정희득도 탈출 기회를 엿보고 놓아 보내주기를 애타게 요청했다. 그들이 간절히 고국으로 돌아가려 한 것은 같지만 돌아가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은

28) 到家則父親入城夜還，而握手痛哭。母親一木主而已。追思母親及嫂妻妹海中之變，罔極罔極。叫天扣地，五內崩裂。加以奇兒年已八歲，牽衣呼哭，此日懷抱，不可形言。遇兒養在草洞聘家，故不即相西，尤可憐也。家舍灰燼，巷陌變易，村落成墟，人面非昔。觸目悲酸，而惟以歸侍老父，爲此生之幸耳。- 鄭希得，『月峯海上錄』，「海上日錄」，1599年 7月 20日。

29) 往拜草洞聘母，帶遇兒而還。年已六歲。人亡跡在。往事蒼茫，傷慟之懷，何可容說。- 鄭希得，『月峯海上錄』，「海上日錄」，1599年 7月 28日。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강항은 일본의 情狀이 눈 안에 들어 있으므로 이것을 알린 후에 처벌을 받아 죄를 갚겠다고 하여, 신하로서 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컸다. 노인은 최귀문에서 부모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과 왜적에게 복수할 계책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큰 귀국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정희득은 일관되게 아버지를 뵈는 것만을 돌아가야 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 ① 한번 죽으면 이 슬픔을 잊을 것이지만 부친의 ‘죽지 말고 돌아와 만나자’ 하신 명령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살아야 했다.³⁰⁾
- ② 내 어찌 차마 이런 경우에서 시를 지으리오마는, 돌아가 부친을 뵈옵기는 오직 이 한 길이었을 뿐이라 억지로 웃으며 껌싸게 지었다.³¹⁾
- ③ 阿波守가 오직 아버이를 그리워하는 절박한 심정을 생각해서, 환국할 길을 터준 것이오.³²⁾

‘죽지 말고 돌아와 만나자’는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억지로 죽지 못하고 산다고 기록하고, 아버지를 뵈기 위해 억지로 시를 지으며, 阿波守가 자신을 보내 준 것도 아버이를 그리워하는 절박한 심정을 생각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희득은 중국인에게 대마도에 억류된 자신들을 배에 태워 부산으로 데려가 달라고 사정하면서도 ‘아버지를 한 번만 뵈는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여 아버지를 뵈는 것만을 귀국의 이유로 든다.

충과 효는 유교의 가장 중요한 관념으로 당대 조선의 선비라면 누구나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희득은 이 충 효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효는 자신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한정된 것이다. 해외체험 당시에 관직에 있지 않았던 정희득은 조정에 대한 신하의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고, 조선 백성으로서 가졌을 충에 대한 의식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는 비극을 겪고 있는 자신에 몰두하였고, 그의 일기와 시에는 비극에 처한 개인으로서의 시선과 감상이 들어있다. 방기철은 ‘정희득은 현직 관료가 아니었던 만큼 일본에서의 생활 중 자신의 일상이 훨씬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을 것이다’, ‘그는 일본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기록했고, 그 감상 역시 자신의 일상이 중심이 되었다’고 하였는데,³³⁾ 그 ‘일상’이 비극에 처한 개인의 의식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월봉해상록』에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을 토로하는 것이 주로 나타나고, 가족·동료에 대한 애정도 표출되어 있다.

임진왜란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가족과 이별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게 되는데, 정희득은 자신이 가장 큰 아픔을 겪는다고 자신의 고통을 극대화한다.

- ① 내가 말하기를, “아무려나 나처럼 부친은 살아 이별하고 모친은 죽어 이별하였으며, 한 목숨이 아직도 살아 있어, 하늘을 부르짖는 가엾음만 하겠나?” 하였다.³⁴⁾
- ② 승냥이 굴에 붙여 사는 자 비록 많겠지만, 지극한 슬픔과 깊은 원한은 나 한 사람 뿐일 것이오. 이제까지 구차히 살아왔으니, 죄가 천지에 가득하오.³⁵⁾

30) 一死則可忘此痛, 而以父親勿死歸見之命, 隱忍苟生. - 鄭希得,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7年 10月 15日.
 31) 余豈忍作詩於此時, 而歸見父親, 只有此一路, 故強顏走成. - 鄭希得,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8年 2月 19日.
 32) 阿波守只爲戀親切迫之情, 使啓還國之行. - 鄭希得,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8年 12月 28日.
 33) 방기철, 「睡隱 姜沆의 일본인식」, 『한국사상과문화』 57,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104~105쪽.
 34) 余曰, 豈如吾生別父死別母, 一息猶存, 叫天罔極者乎. - 鄭希得,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8年 2月 25日.

①은 1598년 2월 25일 일기의 일부로 담양 사람 李丞祥을 만났을 때, 이승상의 이야기를 듣고 한 정희득의 말이다. 이승상은 아내와 이별하고 어린 자식이 죽는 것을 보았으며 현재는 일본에서 외양간의 일을 하고 있었다. 이승상이 괴로움을 견디기 어렵다고 하자 정희득은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 어머니·아내가 자결하고, 아버지·어린 자식과 이별한 정희득의 아픔도 매우 큰 것이지만 자식의 죽음을 직접 본 이승상보다 반드시 더하다고 우위에 둘 수는 없다. 더구나 이승상은 일본에서 외양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정희득은 일본 승려 東首座 등의 도움으로 일을 하지 않았고 노비들의 시중까지 받고 있었으며 친형 정경득과도 함께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정희득은 자기가 더 비극에 처해 있다고 보았다. ②는 1598년 8월 5일 일기의 일부로 포로로 일본 京都에 있던 나주 사람 林子敬이 편지로 사족으로 포로된 자가 많다고 하면서 이름을 알려주자 그에 대해 답한 것이다. 정희득은 ‘승냥이 굴’ 즉 일본에 포로 온 사람이 많지만 ‘지극한 슬픔과 깊은 원한은 나 한 사람 뿐’이라 하여 자신을 가장 비극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다.³⁶⁾ 그리하여 『월봉해상록』에는 이러한 의식이 반영되어, 개인적인 슬픔에 몰두하여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개인으로서 정희득은 피란 중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아내, 고국에 살아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아버지와 자식에 대한 강한 그리움과 아픔을 즐기치게 드러낸다. 또한 함께 일본에 있는 동료들과 노비 등에게도 애정을 갖는다. 정희득은 임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해상일록」에는 임금에 대한 기록이 10차례 있는데,³⁷⁾ 이것도 대부분 ‘임금님과 어버이를 그리워함’,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임금님 그리워하는 마음’ 등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간략히 언급한 것일 뿐이다. 임금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지만, 가족과 동료 등에게는 강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비극에 처한 한 개인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갖는 마음을 볼 수 있다.

① 작은 섬에서 묵었다. 밤에 어머니와 아내의 꿈을 꾸었다. 깨어나니 나도 모르게 왈칵 울음이 터졌다. 한번 죽어 이별한 뒤로, 밤마다 눈만 감으면 꿈이 되어 서로 만나니, 정말 생사 간 오가는 느낌이 깊은 줄을 알겠다.³⁸⁾

② 子平에게 나를 아껴 주는 인정을 치사했다. 대개 왜의 풍속이 청비탕으로 염병을 치료하는데 먹으면 반드시 효험을 보았다. 자평이 조석으로 죽을 끓이고 약을 달여 나를 구호했으나, 거의 죽다가 되살아난 것은 모두 자평의 힘이었다.³⁹⁾

③ 蓬頭隻影彼伊誰 쑥대머리 외로운 그림자 저 누구인가
知是幽閨舊侍兒 알겠거니 안방에서 옛날 부리던 아이인 것을

35) 寄生狼穴, 雖曰多人, 至痛深冤, 獨我一人. 至今苟存, 罪盈天地. - 鄭希得,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8年 8月 5日.

36) 이에 관련하여 장미경은 정희득의 시를 분석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동시대의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비극적인 것으로 인식한 정희득이 외부의 모든 상황을 자신이 처한 현실과 자신이 갖고 있는 슬픔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된 것이다’(「壬亂 被虜者의 捕虜體驗 漢詩研究-鄭希得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0,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280~282쪽)고 보았다. 필자도 이 견해에 동의한다.

37) 1598년 2월 4일, 2월 26일, 3월 13일, 3월 21일, 9월 9일, 1599년 1월 9일, 2월 7일, 윤3월 29일, 4월 10일, 5월 1일.

38) 留泊小島, 夜夢見母親及室人. 覺來不覺痛哭. 一自死別之後, 夜夜合眼則做夢相見, 固知幽明之感應深矣. - 鄭希得,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7年 10月 16日.

39) 致謝子平愛我之情. 蓋倭俗以清脾湯治染病, 服之則必得差效. 子平朝朝夜夜, 煎粥煮藥而救我, 幾死回生, 都是子平之力. - 鄭希得,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8年 1月 20日.

相逢但問人何處	서로 만나 묻는 말 그 사람 어디 있나
不忍言來淚却垂	차마 말 못하고 눈물만 흘리네
心摧面改瘦崢嶸	마음 상하고 얼굴 변해 험상궂게 여위어
相見惟應識舊聲	서로 만나 알아볼 건 옛날 음성 뿐
北窶腥膻丞相淚	북교의 더러운 비린내는 승상의 눈물이요
順殿風雨綠荷情	순전의 바람과 비는 푸른 연의 마음이다
爲言喪亂腸愈裂	난리를 이야기하매 오장 더욱 찢어지고
欲問存亡語未成	존망을 물으려다 미처 말을 못 잇네
今汝好歸須好在	너는 이제 잘 돌아가 부디 잘 있으라
嗟吾方擬一捐生	슬프다 나는 이제 삶을 한번 버리려네 ⁴⁰⁾

가족에 대한 애정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데, 정희득은 꿈에 가족을 보고 울고, 가족과 관련된 물건을 보면 아파하며, 가족의 생일과 기일에는 더욱 그리워한다. ①은 1597년 10월 16일 일기의 전문으로, 어머니와 아내가 자결한 지 20일 정도 지난 날의 일이다. 정희득은 어머니와 아내의 꿈을 꾸고 깨어나 자기도 모르게 울음을 터트리고 있어 그 슬픈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밤마다 꿈이 되어 만난다는 것을 통해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애정을 알 수 있다. 정희득은 아버지, 어머니, 아내, 아이 등 가족을 만나는 꿈을 여러 차례 꾸고 일기에 기록하는데, 아버지를 가서 뵙는 꿈과 아내를 보는 꿈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아버지를 가서 뵙는 것은 현실에서 꼭 이루고 싶은 귀환의 소망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고, 아내를 보는 것은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아내를 꿈에서라도 봤으면 하는 소망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과는 이별을 하였기에 그리움과 슬픔으로 애정이 표현된다며, 함께 일본에 있게 된 동료들에게는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갖는 끈끈한 동지애를 갖는다. 정희득의 동료로 일기에 지속적으로 기록되는 인물은 다음과 같다.

순번	이름	자	일기에 처음 기록된 날	비고
1	鄭檜	子平	1597년 9월 22일	정희득의 족제
2	崔弘建	德陽	1597년 10월 13일	염병으로 일본에서 사망
3	柳澳	仲源	1597년 10월 13일	
4	柳汝宏	仲謙	1598년 3월 9일	전주 사람. 『어유야담』 魯認의 해외체험 이야기에 등장함.
5	朱顯男	晦伯	1598년 3월 12일	
6	林得梯	子敬	1598년 8월 5일	나주 사람. 편지로 교류하다 후에 만남.

여섯 사람의 순서는 일기에 처음 기록된 날 순이며, 정희득은 일기에 대부분 이들의 字를 쓰고 있다. 자평은 함께 배를 타고 피란에 올랐던 족제이고, 나머지는 일본으로 끌려 가던 중이나 일본에서 억류생활을 하던 중에 만났다. 일본 억류생활 중에도 일을 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던 정희득은 이들과 떨어져 있을 때는 편지로 교류하고, 가까이 있게 될 때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이들은 함께 귀환을 준비해서 염병으로 죽은 덕양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사람과는 함께 귀환했다. 위의 ②는 동지애의 한 단면을

40) 鄭希得, 『月峯海上錄』, 「卷二」, <到一處遇禮陽>

보여 주는 기록으로, 족제인 자평이 아픈 정희득을 극진히 간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인들이 형제와 처자를 갈라놓지 않기 때문에 정희득과 자평은 서로 헤어질 것이 두려워 항상 일본인에게 형제라고 할 정도로 애정이 깊었다. 자평은 줄곧 정희득과 같은 방을 쓰다가 1598년 10월 1일에 근처 중원의 집으로 옮겨 가는데, 가까이 살며 계속 만날 수 있음에도 정희득은 서운해 한다.

정희득은 해외체험 중에 양반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부리던 노비들도 만나게 된다. 그는 천한 노비들에게도 동료 양반들에게 보였던 애정을 보이는데, 노비들은 가족을 떠올리게 하여 더 애뜻하기까지 한다. ③은 아내의 몸종 禮陽을 만난 일에 대해 쓴 시 <어떤 곳에서 禮陽을 만나(到一處遇禮陽)>이다. 정희득은 1597년 10월 3일에 전부터 처가에 있던 여종 예양을 만나 이 일을 일기에 기록하였는데, ③은 그 때의 일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⁴¹⁾ 예양은 ‘그 사람 어디 있나’하고 아내에 대해 묻고 정희득은 차마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린다. 왜적에게 잡혀 가는 고생 속에 여위어 목소리만 알아듣고, 난리를 이야기하며 마음이 찢어지고 말을 잊지 못하는 아픔이 절절히 드러난다. 죽은 아내가 부리던 다른 몸종 준비는 정희득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준비가 아내의 제상을 차려 놓고 울었다는 편지를 읽고 정희득도 눈물을 흘린다. 또 아버지가 부리던 德南에게는 부채에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한다. 이처럼 정희득은 노비라 하여 무시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픈 마음을 나눈다. 신분이 낮은 노비들에게조차 애정을 보이고 천한 그들에게도 서글픈 자신의 감정을 보여 주는 것은 주인, 양반으로서의 권위보다 같은 아픔을 겪는 한 개인으로서의 의식이 드러난 것이다.

4. 맺음말

임진왜란기 포로 해외체험 실기는 ‘피란-피랍 및 일본 이송-일본 억류-귀환’이라는 공통된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작자만의 노정과 작자의 의식이 작용하여 작품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정을 바탕으로 한 『월봉해상록』의 서술적 특성과 작자의 의식을 살펴서, 이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먼저 『월봉해상록』의 서술적 특성은 귀환의지의 걱정적 토로, 국내의 노정 기술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었다. 정희득은 피랍 때 어머니와 만삭의 아내가 자결하였고, 아버지와 어린 두 자식은 조선에 남겨졌다. 강항, 노인도 가족과 헤어졌으며 강항의 경우 아버지와 이별하고 어린 자식들의 죽음도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강항은 신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조정의 관료로서 해외체험 노정 동안 나라를 위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관료의 위치에 있지 않은 자연인이자, 누구보다 가족을 중시하였던 정희득은 해외체험 노정 동안 간절히 귀환을 희망하며, 실현되지 못하는 귀환에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귀환의지를 걱정적으로 토로하였다. 대마도 억류기간에는 일본인에게 쓴 글과 시를 통해서 귀환의지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정희득은 강항, 노인에 비해 가장 짧은 기간 동안 해외체험을 하였지만, 걱정적 귀환의지 토로는 『월봉해상록』에서만 볼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간 사람 중 조선으로 돌아온 사람은 귀환 자체만으로 행복할 것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하지만 힘들게 부산에 도착한 이들에게 국가는 대책을 세워주지

41) 다른 노비와 관련하여도 <逢公悅兄婢>, <見小婢書有感>, <遇婢子能非> 등의 시가 있다.

못했고,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힘겹게 고향을 찾아가야 했다. 정희득은 부산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힘든 노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강항, 노인과 달리 조선에 도착한 후의 노정까지 기술하여 임진왜란기 포로 해외체험 실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고향에 도착하고 자식을 만나는 것까지 기록하여 해외체험 노정의 진정한 마무리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월봉해상록』에는 비극적인 개인으로서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희득은 꿈에 가족을 보고 울고, 관련된 물건을 보면 아파하며, 가족의 생일과 기일에는 더욱 그리워하는 등 가족에 대한 애정을 끊임없이 표현하였다. 이는 강항이 사환의식을 기반으로 실기를 기록한데 반해, 정희득은 가족과 헤어진 아픔을 겪는 비극적인 개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 정희득은 함께 비극을 겪는 동료들에게도 깊은 동지애를 갖고 그들과의 일을 기록하며, 신분이 낮은 노비들에게조차 애정을 보이고 천한 그들에게도 서글픈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었다. 주인, 양반으로서의 권위보다 같은 아픔을 겪는 한 개인으로서의 의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자 의식은 『월봉해상록』이 임진왜란기 포로들의 처절한 슬픔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이 되게 하였다.

참고문헌

姜沆, 『睡隱集』

魯認, 『錦溪日記』

鄭慶得, 『萬死錄』

鄭希得, 『月峯海上錄』

鄭好仁, 『丁酉避亂記』

『宣祖實錄』

강항, 『간양록』, 《국역해행총재》Ⅱ, 민족문화추진회, 1974.

노인, 『금계일기』, 《국역해행총재》Ⅸ, 민족문화추진회, 1977.

정경득, 『만사록』,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진주정씨월봉공중중회, 1986.

정희득, 『해상록』, 《국역해행총재》Ⅷ, 민족문화추진회, 1977.

정호인, 『정유괴란기』,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진주정씨월봉공중중회, 1986.

김기빈, 「壬亂時 被俘 文人의 體驗的 文學의 考察-‘看羊錄’과 ‘月峯海上錄’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21, 한국한문학회, 1998.

김미선, 「‘看羊錄’의 여정에 따른 서술 방법」, 『도서문화』 38,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11, 148~149쪽.

김미선, 「임진왜란 포로의 일본 체험 실기 고찰」, 『고시가연구』 25, 한국고시가학회, 2010, 43쪽.

김선희, 「포로 역류기를 통해 본 조선지식인의 ‘일본’을 향한 시선」, 『사림』 34, 수선사학회, 2009.

김태준, 「임진왜란과 국외체험의 實記文學」,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민덕기, 「임진왜란 중의 납치된 조선인 문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395쪽.

- 민덕기, 「임진왜란에 납치된 조선인의 귀환과 잔류로의 길」, 『한일관계사연구』 20, 한일관계사학회, 2004, 139쪽.
- 방기철, 「睡隱 姜沆의 일본인식」, 『한국사상과문화』 57,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104~105쪽/190쪽.
- 소재영, 「壬亂被虜들의 海外體驗-錦溪日記·看羊錄·海上日錄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9·10, 겨레어문학회, 1985.
- 요네타니 히토시, 「사로잡힌 조선인들-전후 조선인 포로 송환에 대하여-」,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89쪽/105~107쪽.
- 윤인현, 「‘海上錄’과 ‘丁酉避亂記’ 研究-일본풍물 및 일본인 인식과 선비精神 중심으로-」, 『한문학논총』 32, 근역한문학회, 2011.
- 이채연, 『壬辰倭亂 捕虜實記 研究』, 박이정, 1995.
- 장경남, 「壬辰倭亂 實記文學 研究」,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장미경, 「壬亂 被虜者의 捕虜體驗 漢詩研究-鄭希得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0,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280~282쪽.
- 정훈식, 「‘月峯海上錄’과 ‘蘇武傳’」, 『문창어문논집』 38, 문창어문학회, 2001.
- 최관, 『일본과 임진왜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125쪽.

<Abstarct>

Wolbonghaesangnok Travelogue, and Its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nd Its Author's Attitude

Kim, mi-sun

Records of overseas experiences by prisoners of Imjin Wareran (Japanese invasion of Joseon) have a common descriptive structure, but they each have their own unique individuality due to authors' different journeys and their attitudes.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Wolbonghaesangnok Travelogue by Jeong Hui-deuk (1575~1640) by studying descriptive characteristics based on his journey and attitude.

First,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Wolbonghaesangnok were defined as his strong expression of wish for returning home and his domestic journey description. Jeong Hui-deuk, when captured by the Japanese soldiers, saw his mother and his full-term pregnant wife commit suicide, and left behind his father and his two young children in Joseon. He was a common citizen with no government job, and loved his family so much. While staying overseas as a hostage, he expressed his extreme sorrow for inability to return home, and stated his strong wish to return home. He stayed overseas for the shortest period compared with Gang Hang and Inno, but a strong expression of wish to return home can be found only in Wolbonghaesangnok.

Hostages, who were taken to Japa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arrived in Busna after experiencing many hardships, and returned to their hometowns with the state being unable to providing any support to them. Jeong Hui-deuk described his journey details including those not described by Gang Hang and Noin after arriving in Joseon. He thus showed a wider range of overseas experience that Joseon prisoners of war taken to Japan could have, as well as the story of his return to his hometown where he met his children, thus wrapping up his journey.

In addition, Wolbonghaesangnok was found to reflect a personal tragic attitude. Jeong Hui-deuk ceaselessly described his longing for and affection toward his family, because he wrote a personal tragedy of the pain of separating from his family. Also, Jeong Hui-deuk showed his affection toward not only his colleagues suffering tragedy but also low-class slaves, thus exposing his sad feelings. This is the reflection of the attitude of a person who suffered from sorrow, not as a master and nobleman with authority. Such attitude made Wolbonghaesangnok become the work that best described the bitter sorrow of Joseon prisoners of war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Keywords : Jeong Hui-deuk, Wolbonghaesangnok Travelogue, hostage hel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journey, descriptive characteristics, determination to return home, and author's attitude